

## 1) 임청대와 진술회

임청대(臨淸臺)는 유배된 김굉필과 조위에 대해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순천사람에 대한 행적은 이것과 관련한 기록들에서 처음 발견된다. 그것은 당시 유학의 거두에 해당하는 이들과 어울렸던 진술회라는 것이다. 다음은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1759)의 옥천서원에 관한 기사이다.

김굉필은 1498년 무오사화로 희천군(熙川郡)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에 어머니의 상언(上言)으로 근도(近道)로의 이배를 허락받아 순천부로 옮겼다가 1504년에 갑자사화로 화가 적소(謫所)에 미쳐 생을 마쳤다. 그는 이 기간(1500~1504) 동안 순천에 머문 셈이다.

『임청대비음(臨淸臺碑陰)』에 따르면 “김 선생과 매계 조위가 같이 승평에 유배되었다. 이들은 돌을 모아 대를 쌓고 매계가 ‘임청’이라고 이름짓고 기를 썼다. 지금부터 6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 글자를 새기려 하나 돌의 질 때문에 쓰기가 힘들어 단지 비 앞면에 ‘임청대’라고 크게 석 자만 새긴다. 글씨는 퇴계 이황의 것이고, 이 글을 쓴 자는 진사 정소이며, 공사를 감독한 사람은 진사 배숙이다. 당시의 태수(太守)는 구암 이정이다. 황명가정사십사년(皇明嘉靖四十四年) 을축(乙丑) 팔월 일 입”이라 하였다.

『구암집(龜岩集)』 권1, 임청대비음지의 세주에 따르면,<sup>1)</sup> 이정이 부임하고 있을 당시 80여 세의 노리(老吏)인 장우동(張雨叟)이란 사람이 증언하기를 자신이 18~19세 때 조 참판의 집에서, 김 좌랑이 희천에서 각각 이곳으로 이배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참판, 즉 매계는 서문(西門) 밖에서, 좌랑, 즉 한훤당은 북문(北門) 밖에서 각기 타향살이를 하였다. 참판은 향노들과 더불어 서계(西溪)에 가서 놀며 고목 아래에 돌을 모아 대(臺)를 만들고 자주 서로 왕래하며 바둑도 두고 술도 마시며 종일 시를 읊기도 하였으며, 좌랑은 때때로 홀로 대에서 배회하였으나 시 읊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후 참판은 병으로 일 년 먼저 죽고, 좌랑은 갑자지변을 만나 죽게 되었다. 장우동이 그 전말을 아는 것은 집이 그 근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우동의 증언에서 김 좌랑과 조 참판의 유배 생활 방식이 각기 달랐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조위의 자는 태허(太虛)이고, 호는 매계로 창녕인(昌寧人)이다. 무오사화로 의주로 유배된 후 순천으로 이배되어 서문 밖에서 교거(僑居)하면서 읍인 수명과 진술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임청대기(臨淸臺記)』에 따르면 그는 승평에서 읍 사람들과 자주 집 근처의 계곡을 노니며 돌을 모아 대를 세우고 이름을 임청이라 하고 심종류(沈從柳)·양우평(梁禹平)·한인수(韓麟壽)·장자강(張自綱) 등과 진술회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모임의 주찬은 간단하고 검소하게 하였으며, 특히 술은 수작(酬酌)하지 않고 몇 순을 돈 후 그쳤다고 한다.

이수광(1563~1628)이 찬한 **승평지**』 사실조에, “조매계의 「임청대기」에 이르기를 주인 심군, 양씨, 한씨 두 노인, 그리고 장 교관 등이 진술회를 만들어 2년간 (임청대에 모여) 시를 읊고 주찬을 즐기고 산책을 하였다. 그러나 한훤당은 때때로 홀로 이곳을 배회하였을 뿐 음영(吟詠)하지는 않아 엄격

1) “老吏張雨叟者 時年八十餘 自言十八九歲時 曹參判自義州 金佐郎自熙川 移配此府 參判僑居西門外 佐郎寓在北門外 參判與鄉老往遊于西溪上 依老樹下聚石爲臺 數相往來 或碁或酒 或終日吟詩 佐郎則時時獨往徘徊于臺上 不事吟詠 參判以病先一年卒 佐郎終遭甲子之變 老民家在旁近 稍知首末云云”

2) 구암 이정이撰한 **景賢錄**』에는 한훤의 遺事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히 척신제행(飭身制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솔회를 통해 매계와 함께 어울린 자들로 거명된 심종류·양우평·한인수 등의 읍인에 대해서는 이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이수광이 이들을 주인이라고 한 것에서 당시 이들이 향임을 맡은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관 장자강은 앞서의 목천 장씨 입향사실에서 밝힌 대로 생원으로 진주에서 이곳으로 와 교수관으로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자이다.

이상의 기사를 통해 볼 때 임청대와 관련한 이 당시의 순천사람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이 미약했던 것 같다. 즉 김굉필이나 조위와 같은 유학의 거두가 비록 일시적이거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이곳에 사립적 기반이 있었다면 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보다 훨씬 더 풍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청대’ 이후에도 이곳 사람의 족적은 읍인들보다는 외부인들이 남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 예로 성 동쪽에 있는 환선정(喚仙亭)에 관한 기록을 보자. 이 정자는 1543년에 이곳에 부사로 있던 심통원(沈通源)이 처음 건립한 것이다. 이곳에 운(韻)을 남긴 사족들은 관찰사 송인수(宋麟壽), 옥과현감 김인후(金麟厚),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부사(府使) 유영순(柳永詢), 부사 유순익(柳舜翼), 관찰사 이경전(李慶全), 경차관(敬差官) 양극선(梁克選), 광주목사 박경신(朴慶新), 관찰사 이덕형(李德涇), 부사 이수광, 장성현감 양경우(梁慶遇) 등이다. 부사 이수광은 특히 「환선정십영(喚仙亭十詠)」을 지었다. 「승평백운(昇平百韻)」이라는 시를 쓴 소재 노수신(1515~1590)은 앞서의 두 학자와 마찬가지로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1547년에 을사사화 때 순천으로 유배되어 이 정자에 운을 남긴 것이다.<sup>3)</sup>

---

3) 『蘇齋集』 권4 참조.